

穆旦 後期詩에 나타난 文革과 自我 認識*

金素賢**

<목 차>

1. 서론
2. '埋葬된 시인 穆旦'
3. '불온한 글쟁이'의 노래
4. 理想, 그리고 '나'의 형성과 침몰
5. 결론

1. 서론

문혁의 일방적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던 지식인들의 문혁 회고는 어두운 시대에 대한 고발이라는 의미와 함께 문혁 시기의 자기 부정에 대한 또 한 번의 부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강제성과 자발성이 착종된 형태로 이루어졌던 문혁 시기 지식인의 자기 부정은 권력의 광기를 가능하게 한 굴종의 한 형태였고, 결국 다시 한 번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될 지식인의 자기 굴레였다. 문혁을 부정하는 것은 문혁 시기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자기 부정은 언제나 그에 따른 고통을 수반한다. 자기 부정의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고발은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자기 성찰이 결여된 한풀이에 불과하다. 시대와 권력도 어리석었지만 그 희생자 역시 어리석었다는 자각 없이는 언제나 억울한 피해자만 남아 운명을 타할 수밖에 없다.

시인 穆旦(1918~1977: 원명 查良鏞) 역시 反右派運動과 문혁을 거치면서 혹독한 자기 부정의 과정을 거쳐야 했고, 정치적 광풍이 찾아들 무렵 과거의 자기 부정에 대한 준엄한 성찰을 시를 통해 보여 주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문혁의 종결 시점까지, 20년 가까이 시를 쓰지 않았던 穆旦이 다시 시를 쓴 것은 시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자각과 자기 성찰의 필요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랜 공백 이후의 시적 성과물들은 청년기의 순수한 열정 대신 삶을 바라보는 냉정하고 다면적인 이해의 깊이를 보여 주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압도했던 시대와 정치적 억압, 그 속에서 잃어버린 자아에 대한 사고의 전면적 재구성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다.

이 연구는 1950년대 후반 중국 사회의 정치적 격변이 穆旦과 그의 창작에 미친 일련의 부정적 영향과 1975년부터 재개된 후기 창작의 의미를 구명함으로써 穆旦의 시를 보다 전면적으로 이해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穆旦의 전체 창작 과정 중에서 가장 활발한 창작 시기로 이해되는 1940년대 작품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후기 작품에 담긴 시적 변화의 함의와 인생 전반에 대한 시인의 성찰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 과정은 문혁 문학의 일부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穆旦의 후기 작품에 내재된 현실 비판적 의미를 구명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더불어 자기 자신까지도 懷疑하고 비판하는 穆旦의 문학하는 태도에 대한 설명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 연구가 시를 쓸 수 없는 시인, 사고할 수 없는 지식인으로 살아야 했던 穆旦과 당대 중국 지식인의 운명에 대한 보고로서의 의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埋葬'된 시인 穆旦

1930, 40년대 중국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애국적 열정과 이상주의적 기대를 버리지 않았던 청년 穆旦은 1949년부터 1952년까지의 미국 유학을 통해서 구 사회와 문학을 보다 깊이 체험하고 이해하게 된다. 유학생활을 끝낸 穆旦은 신생 사회주의 중국의 불투명한 장래로 인한 주변의 만류와 美 당국의 귀국 불허에도 불구하고 1953년 중국으로 귀국한다.¹⁾ 穆旦이 귀국한 1953년은 1951년부터 52년 사이에 진행된 지식인, 관료, 부르주아지 등을 대상으로 한 사상개조운동 및 三反, 五反運動의 영향으로 도시에서의 민간 행정, 경제, 교육 기관 등이 공산당에 의해 통제되고 지식인들의 자유 또한 제한받기 시작한 시점이었지만,²⁾ 穆旦은 그 같은 상황이 자신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기보다 신 중국에서의 자기 역할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교육과 창작, 번역 등에 할애하며 왕성하게 활동하던 穆旦은 1954년 말의 《紅樓夢》 문제에 관한 南開大學 外文系 토론회 참석을 기점으로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당시 회의석상에서 지도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몇몇 발언자들이 '小集團'으로 분류되었고,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발언 원고를 준비했다는 이유만으로 穆旦 역시 '小集團'으로 분류된 것이다. 게다가 중일전쟁 중 國民黨 遠征軍으로 참전한 과거³⁾까지

1) 1949년 시카고대학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穆旦은 부인 周與良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1952년에 귀국을 계획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周與良의 세균전 투입 가능성을 우려한 미 당국의 불허로 귀국은 성사되지 않았고, 1953년에야 지도교수의 보증으로 홍콩으로의 귀국을 허가받게 된다. 1953년 1월, 홍콩이 아닌 深川, 廣州, 上海 등지를 거쳐 北京에 도착한 穆旦은 5월에 天津 南開大學 外文系 副教授에 임용된다. 李方 編選, 《穆旦詩文集2》(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6) 366쪽 참조.

2)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서울: 이산, 2004), 135-138쪽 참조.

거론되면서 穆旦은 南開大學의 肅反對象으로 분류되었다.

곤혹스러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지식인의 사상 개조 필요성과 낡은 자아와의 결별 의지를 표현했던 시 <장송곡 葬歌>(《詩刊》1957年 第2期)과 雙百方針에 호응하여 썼던 <구십구가쟁명기 九十九家爭鳴記>(1957년 5월 7일자 《人民日報》)였다.

너는 정녕 영원히 이별했네, 나의 친구?/ 나의 그림자, 내 지난날의 자신?/(중략)// 너는 또 어디를 향해 신음하고 웃는 것인가?/ 너의 웃음조차 그리 비천하니./ 네 수많은 이야기에 우여곡절이 있다 해도/ 그림자가 어찌 햇볕과 맞서랴?/(중략)//“오, 매장하라, 매장하라, 매장하라!” 나는 참을 수 없어 자신에게 외치네./ 이 죽음의 한 모퉁이에서/ 나는 너무 오랫동안 떠돌고 막막했으니/ 내 눈물로 몸을 씻어./ 참회의 기쁨을 느끼게 하라.// 이렇게, 어둡고 긴 통로를 새처럼 빠져나와/ 나는 햇볕과 그대들, 친애하는 독자들을 만나리니/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영웅의 서사시를 썼는지 알 수 없으나/ 나는, 이 가난한 마음엔! 자신의 장송곡뿐이네./ 부를 만한 노래 많지 않으니, 이것은 결국/ 낡은 지식분자가 겪어 온 삶의 곡절/ 그의 짐은 아주 무거워, 그대들은 이미 보았네, 그대들과/ 함께 전진하려는 그의 결심과, 여기에 드러나는 그의 기쁨을./ 이 시만을 보고 얘기한다면./ 누군가는 그것이 그다지 열정적이지 않다 싫어할 지도 모르니/ 새로운 사물에 대한 열망이 깊지 않고, 낡은 것에 대한 증오가 많지 않다고/ 바로 이 때문에……나의 장송곡은 반만 부른 셈이니./ 나머지 절반은, 동지들이여, 내 삶이 바뀌도록 도와주시기를. 4)

3) 穆旦은 1942년 2월 中國遠征軍 통역병 신분으로 미얀마전선에 투입되었고, 5월에는 일본군에 패해 후퇴하던 중 미얀마와 중국 국경의 밀림지대에서 낙오하여 5개월간 실종되었다가 인도에 도착한 경험이 있다. 《穆旦詩文集2》, 355-356쪽 참조.

4) “你可是永別了, 我的朋友?/ 我的陰影, 我過去的自己?/(中略)// 你還向哪裏呻吟和微笑?/ 連你的微笑都那麼寒儉./ 你的千言萬語雖然曲折, 但是陰影怎能碰得陽光?/(中略)// 哦, 埋葬, 埋葬, 埋葬! / 我不禁對自己呼喊:/ 在這死亡底一角, / 我過久地漂泊, 茫然:/ 讓我以眼淚洗身./ 先感到懺悔的喜歡.// 就這樣, 像鳥飛出長長的陰暗甬道./ 我飛出會見陽光和你們, 親愛的讀者:/ 這時代不知寫出了多少篇英雄史詩, / 而我呢, 這貧窮的心! 只有自己的葬歌./ 沒有太多值得歌唱的: 這總歸不過是/ 一個舊的知識分子, 他所經歷的曲折:/ 他的包袱很重, 你們都已看到: 他決心/ 和你們并肩前進, 這兒表出他的歡樂./ 就詩論詩, 恐怕有人會嫌它不夠熱情:/ 對新事物向往不深, 對舊的憎惡不多./ 也就因此……我的葬歌只算唱了一半, / 那後一半, 同志們, 請幫助我變為生活.” <葬歌> 중에서, 《詩刊》1957年 5月號, 李方 編選, 《穆

99行에 달하는 이 시의 전체적인 구성은 낡은 자아와의 '이별'과 자기 '매장'의 절박감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를 표출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건 "예술은 곧 정치로 그 시대의 주류의식이었다"⁵⁾라는 말에 함축된 시대의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초기 반혁명의 위협으로부터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공포정치는 다양한 대중운동을 통해 유지 확산되었고, 장차 정권의 비판 세력으로 성장해 갈 지식인에 대한 통제는 공포정치의 핵심이었다. 과거 정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와 방법으로 지식인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권력은 무엇보다 지식인들의 끊임없는 자기 개조를 요구했는데, 공포정치의 가공할 위력을 경험한 지식인들은 그 같은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참회'와 '눈물'이 자기 개조가 겪어야 할 필연적 과정이라고 해도 자아의 '매장'은 자기 부정에 대한 부담감이 강박적으로 표출된 실례로 볼 수밖에 없다. 스스로를 '낡은 지식분자'로 규정하고 '그림자', '어둡고 긴 통로', '죽음의 한 모퉁이' 등의 이미지로 과거 삶의 의미를 부정함으로써 자기 '매장'의 필요는 더욱 분명해진 셈이지만 '내 삶이 바뀌도록 도와 줄' '그대들'을 새로운 자아 형성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개조는 사실상 어떠한 자발성도 개입할 수 없는 피동적 과정으로 고착화 되어 간다. 穆旦이 자기 존재를 '나'와 '너'로 부단히 교차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었던 자기 개조 주체에 대한 혼란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시(<장송곡>)는 우리 지식인들의 사상 개조와 낡은 자아와의 결별에 대한 다짐을 쓴 것이네. 그 시절 사람들은 오직 조국에 대한 봉사만을 생각했고 스스로를 개조해야 한다고 느꼈지. 자신은 결합투성이여서 시대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할까 두려웠어."⁶⁾

旦詩文集1》(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6), 298-302쪽.

5) 첸리첸 지음/ 길정행·신동순·안영은 옮김, 《망각을 거부하라》(서울: 그린비, 2012), 641쪽.

6) 郭保衛, <書信今猶在, 詩人何處尋>, 《一個民族已經起來》(江蘇: 江蘇人民出版社, 1987), 175쪽 참조.

라는 만년의 술회가 보여주듯 당시 穆旦을 지배했던 것은 ‘결함투성이 자아’로 ‘시대의 발걸음’을 쫓아야 한다는 ‘두려움’이었다. 王家新은 그의 <穆旦: 翻譯作爲幸存>에서, 귀국 이후 穆旦은 자신의 순진함을 알아차렸고 일련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매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매장해야 할 과거의 자아에는 시 쓰기의 방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穆旦의 과거 창작경향은 새로운 시대와 엇박자를 빚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때문에 穆旦은 시인으로서의 자아를 매장하고 번역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⁷⁾

한편 1957년 5월 7일에는 <구십구가쟁명기>를 통해 “할 말은 있으나,/ 지금 겸손의 병을 앓고 있어” ‘百家’를 이루지 못한 ‘한 사람’⁸⁾의 입을 빌어 당시의 일반적인 회의 광경을 풍자적으로 묘사했다. 시의 제목과는 달리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한 사람’(시인 자신)을 포함한 101명인데, 회의의 모든 사안에 대해 권위적 결론을 내리게 될 ‘主席’이 나머지 한 사람이다.

시에서는 저마다의 특징을 지닌 다양한 인간 군상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小趙’, ‘錢’, ‘孫’, ‘老李’, ‘周同志’를 비롯하여 ‘原則性’에 관한 가장 성가신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주고받는 ‘족히 50명은 되는 同志들’, 그리고 ‘예스맨 應聲蟲’, ‘거짓 진보 假前進’라는 별명이 붙은 두 사람 간의 舌戰 등이 묘사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모든 발언에 대한 主席의 결론이다. 시인은 主席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해당 발언에 대한 결론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主席의 결론과 비교함으로써 유일한 권위로서의 主席의 견해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 ‘小趙’가 ‘구구절절 보잘 것 없는 식견을 표현’했으나 ‘主席은 그를 칭찬했다’든지, ‘周同志’의 발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자의 지지’를 받았으니 그의 말에 대해 ‘누가 감히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

7) 王家新, <穆旦: 翻譯作爲幸存>, 《江漢大學學報(人文科學版)》(2009年 6期), 7쪽 참조.

8) “我這一家雖然也有話說,/ 現在可患着虛心的病.” <九十九家爭鳴記> 중에서, 1957年 5月 7日字 《人民日報》.

가?’라고 반문함으로써 과연 ‘周同志’의 말이 모두 옳았기 때문에 반박하지 않은 것일까라는 여운을 남긴다. 또 열 번째 聯에서는 “누군가가 언급한 사실이 불행하게도/ 권위자의 의견과 완전히 다를 때는/ 발언하지 않았던 다른 자가 열린 기회를 잡아/ 그 문제에 있어서 한 바탕 ‘혁명적’이 되었다”⁹⁾고 함으로써 민감한 문제에 반응 하는 회의 참석자들 간의 경쟁적 분위기를 풍자하고 있다. 회의가 끝날 무렵 主席은 계속 침묵하고 있는 시인에게 몇 마디 하라고 채근하고, 어쩔 수 없었던 시인은 “첫째, 오늘의 회의는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둘째, 토론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셋째, 이런 회의가 자주 개최되어/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길 희망합니다.”¹⁰⁾라는 지극히 형식적이지만 ‘안전’해 보이는 말로 마무리 한다.

이 시가 발표된 1957년 5월과 6월 초는, 1956년 당 대회에서 공식 승인을 받고도 대부분의 당 기관과 고위 관료의 미온적 태도로 본격화 되지 않고 있었던 雙百運動이 사회·정치적 비판의 형태로 급류를 탄 시기였다. 지식인들은 일상의 작은 불만에서부터 사회 정치 질서 전반에 대한 고발까지 광범위한 비판을 시작했고 비판의 수위 역시 날로 높아져 갔다.¹¹⁾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穆旦은 당과 毛澤東이 요구하는 비판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그것이 초래할 지도 모를 부정적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할 말은 있으나,/ 지금 겸손의 병을 앓고 있어” ‘百家’를 이루지 못한 ‘한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밝히는 것으로 시를 시작하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침묵함으로써 主席으로부터 발언을 요구받고도 내용 없는 말로 얼버무리는 모습은 1954년의 《紅樓夢》 관련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소극적 태도일 것이다. 특히 英美 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主知的이고 절제된 언어를 구사했던 19

9) “有誰不幸提到一個事實,/ 和權威意見顯然不同,/ 沒發言的趕緊抓住機會,/ 在這一點上‘左’了一通” <九十九家爭鳴記> 중에서, 《穆旦詩文集1》, 312-313쪽.

10) “第一, 今天的會我很興奮,/ 第二, 爭鳴爭得相當成功,/ 第三, 希望這樣的會多開幾次,/ 大家更可以開誠布公……” <九十九家爭鳴記> 중에서, 《穆旦詩文集1》, 313쪽.

11)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241-251쪽 참조.

40년대 穆旦 시의 경향을 생각할 때, 등장인물 간 실제 대화를 중심으로 장황한 스토리텔링을 전개하는 시적 구성은 새로운 시도로서의 의미 외에도 과거 창작 경향에 대한 자기 검열적 태도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실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들 시와 관련하여 穆旦이 겪었던 일련의 과정은 雙百運動이 反右派運動으로 전환해 가는 정치적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이 역시 정치 우위의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는 실례였다. 1957년 9월부터 《詩刊》과 《人民文學》 등에는 穆旦의 <구십구가쟁명기>와 <장송곡>을 비판하는 글이 잇달아 게재되었다. 날로 수위가 높아지는 지식인들의 사회 비판이 중국공산당과 毛澤東을 겨냥하게 되면서 雙百運動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고, 갑작스러운 雙百方針의 철회는 더욱 혹독한 정치적 탄압으로 이어졌다.

1958년 8월 25일 《詩刊》(1958年 8月號)에는 <穆旦의 '장송곡'은 무엇을 매장했나? 穆旦의葬歌埋葬了什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다. 이 글을 쓴 李樹森은 穆旦의 시가 표면적으로는 '낡은 자아 舊我'를 매장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산계급 개인주의를 노래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자산계급 사상을 선전하는 나쁜 작품이라고 비난했다. 그해 12월 25일자 《人民日報》는 戴伯健의 <'백가쟁명'을 왜곡한 시 — '구십구가쟁명기'에 대한 비평 一首歪曲 '百家爭鳴'的詩——對'九十九家爭鳴記'的批評>을 게재하여 穆旦의 시가 안고 있는 정치적 함의와 문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글에서 戴伯健은 <구십구가쟁명기>를 '나쁜 시 不好的詩'로 규정하면서 이 시가 당의 雙百方針과 整風運動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九十九家爭鳴記'라는 제목이 보여주듯 '爭鳴' 하는 '九十九家'에 진정으로 함께 '울어야 鳴' 할 '한 사람'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스스로를 배제한 채 '爭鳴' 중인 타인을 조롱할 뿐 아니라 '主席'의 태도까지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雙百運動으로 팽배해진 지식인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새로운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穆旦과

그의 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수많은 정치적 犧牲 중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穆旦은 1958년 1월 4일자 《人民日報》에 <크게 배웠습니다 我上了一課>라는 자아비판의 글을 게재하여 자신의 <구십구가쟁명기>가 雙百方針을 충실히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의도와는 달리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으며, 이것은 순전히 자신의 사상 수준이 낮아 雙百方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임을 분명히 밝혀야만 했다.

하지만 穆旦을 향한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58년 12월 南開大學의 反右傾運動 성과로서 법원은 “査良錚을 歷史反革命”으로 선포하고 “기관의 통제를 받을 것”과 강의실에서의 축출을 명령했고, 穆旦은 南開大學 도서관에서 勞動管制을 받아야 했다. 1959년부터 1961년까지 3년간의 勞動管制 기간 동안 穆旦은 모든 글쓰기와 번역을 중단했고 심지어 지인들과의 서신 왕래도 중단했다. 이는 글쓰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하는 실례라 할 수 있다.

勞動管制이 끝난 후에도 穆旦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南開大學 도서관에서 도서정리와 색인 베끼기, 화장실 청소 등의 육체노동을 해야 했고,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에 바이런의 《돈 주앙 唐璜》 번역에 몰두하는 것으로 자신의 知的 생활을 어렵게 지속했다.¹²⁾ 그는 더 이상 시인 穆旦이 아닌 번역가 査良錚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는 당이 요구하는 정치적 표준을 충족시키는 시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깊이 깨달은 시인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12) 穆旦은 《唐璜》 외에도 《普希金 敘情詩》(上、下集), 《波爾塔瓦》, 《青銅騎士》, 《可甫利頌》, 《高加索的捕虜》, 《歐根·奧涅金》 등을 번역했다. 穆旦의 번역가로서의 삶과 의미에 대해서는 王家新의 <穆旦: 翻譯作爲幸存>, 《江漢大學學報(人文科學版)》(2009年 6期) 참조.

3. '불온한 글쟁이'의 노래

문혁 기간 동안 穆旦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특별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문혁 초기의 비판 투쟁과 가택 수색, 가산 몰수, '牛棚'에서의 노동개조, 스파이 혐의로 투옥된 부인, 농촌 오지로의 下放, '黑五類子女'로 분류되어 사회적 차별에 시달려야 했던 자녀들, '5.7干校'에서의 노동 개조 어떤 의미에서는 평범하다고 할 수도 있는 이 같은 이력이 穆旦만의 불행을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穆旦 스스로도 문혁 시기의 질곡에 대해 특별히 거론한 적이 없지만, 만약 그가 서둘러 귀국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가정을 해 보면 그의 불행은 피할 수도 있었던 불행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이런 안타까움은 穆旦의 자녀들도 느낀 바 있는 人之常情이었지만¹³⁾ 穆旦 자신만큼은 후회할 수 없는 필연적 선택이었을 것이다.

穆旦은 문혁 기간 동안 시를 쓰지 않았다. <구십구가쟁명기>와 <장송곡>으로 인한 정치적 탄압을 돌이켜 보면 다시 시를 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穆旦이 문혁 기간 동안 남긴 기록은 일기와 서신 정도인데, 1959년부터 1977년까지의 일기는 정치적 곤경에 처한 穆旦의 상황과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한적 자료라 할 수 있다.

2006년 12월 人民文學出版社에서 출판된 《穆旦詩文集2》에 수록된 穆旦의 日記手稿는 1959년 1월 1일부터 1960년 3월 23일까지의 日記手稿(1), 1968

13) 1973년 4월, 穆旦은 미국 국적의 수학자이자 西南聯大 동창이었던 王憲鍾을 만난다. 귀빈 대우를 받으며 중국을 방문한 아버지의 친구를 보면서 穆旦의 자녀들은 부모의 귀국을 원망했다. 이에 대해 穆旦은 "미국은 물질문명이 발달한 나라다. 하지만..... 물질이 모든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인간은 동물처럼 살 수 없으니 인간으로서의 포부를 가져야 한다. 중국이 가난하다 해도 우리나라다. 우리는 타인에게 의지하는 二等 국민이 될 수는 없다."며 자녀들을 훈계했다고 한다. 永明, 瑗平, <憶父親>, 杜運燮, 袁可嘉, 周與良 編 《一個民族已經起來》, 139쪽 참조.

년 10월 26일부터 1970년 10월 17일까지의 日記手稿(2), 1970년 10월 17일부터 1972년 11월 10일까지의 日記手稿(3), 1973년 2월 16일부터 1977년 2월 23일까지의 日記手稿(4)로 분류되어 있다.

日記手稿(1)은 자신이 받았던 정치적인 처벌을 상기하면서 철저한 자기 개조와 조직과 당에 대한 복종의 의지를 다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1959년 9월 말이라고 표기된 일기에서는 자기 사상에 대한 총괄적 성격의 글을 '思想總結提要'라는 제하에 정리하고 있다. 穆旦은 자산계급 입장에서 군중운동을 보았던 것이 자기 사상의 낙후 원인이었다고 분석한 후 "어떻게 하면 당의 '온순한 도구 馴順工具'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스스로 제기한다. 穆旦은 어떤 사회에서나 인간은 필연적으로 '도구 工具'이지만, 구사회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人性을 말살당하는 것임에 반해 사회주의를 위한 도구는 인간의 모든 합리적 측면을 발양하는 것이며 숭고한 사업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당의 온순한 도구가 된다는 것은 思考를 금지당하는 것이 아니라 극대의 창조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라며 개인주의를 버리고 당과 함께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는 자유가 아닌 합리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에 도달할 수 있음도 덧붙이고 있다.¹⁴⁾ 1960년 3월 23일의 일기에서는 '두 가지 세계관의 투쟁', 즉 변증법적 유물론과 唯心主義의 필연적 투쟁에 대해 정리하면서, 세계관은 계급적 입장에 의해 결정되므로 毛主席의 思想을 학습해야 하며 당의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함으로써 당에 대한 절대적 복종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 시기의 일기는 私的 기록물로서의 특징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이 같은 일기 쓰기를 통해 부단히 자기 의지를 다지려는 것처럼 보인다.

문혁이 본격화된 日記手稿(2)의 기간에는 정치적인 숙청의 과정에서 결코 도태되지 않고 자기 개조를 완수하리라는 다짐, 毛主席 저작 학습 후의 문혁의

14) 《穆旦詩文集2》, 257-258쪽 참조.

필요에 대한 공감, 육체노동의 과정 중에 느끼는 자기 한계, 노동하는 혁명적 인민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의 다짐, 과거 자신의 행적이 역사 문제의 형태로 再審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中國遠征軍 참전 경험을 毛澤東 저작의 관점에 근거, '民主個人主義'와 '唯心史觀'에 기초한 '서양 노예 洋奴'로서의 행위였다고 자아비판하면서, 3년간의 미국 유학생 생활 중 미국 사회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품지 않았지만 그 밖의 '民主個人主義' 사상에 대한 지적은 감내하겠다는 부분에 이르면 당시 穆昶이 느꼈을 정치적 비판에 대한 중압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급기야 1969년 1월 8일의 일기에는 毛澤東의 과거 詩詞 13편을 그대로 베껴 놓는가 하면, 2월 18일의 일기에는 <十年總結>을 비롯한 毛澤東의 저작 일부를 抄錄하고 있는데, 자신의 사고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정치적 권위에 대한 강박적 경외가 착종된 결과로 보인다.

문혁의 급진적 성격이 전환하기 시작하는 1970년 이후의 일기는 그 형식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1970년 2월 16일부터 1977년 2월까지의 일기는 한 두 줄의 간단한 메모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일기의 내용도 날씨가 춥다, 눈이 내렸다, 비가 왔다, 생일에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변소 청소를 했다, 사상 보고를 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소화가 안 된다,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았다, 이발을 했다 등과 같이 지극히 일상적이며 정치성을 찾아보기 힘든 단순 사실의 기록으로 일관하고 있다.

穆昶의 일기는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문혁을 전후한 시기의 중국 정치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의 역학 관계에서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穆昶은 당과 권력의 요구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자의식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는 진심으로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끊임없는 상황의 변화 속에서 결심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1975년에 재개된 穆旦의 시 쓰기는 1958년 이후 정지되어버린 자기 사고의 재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일방적 순종과 수용을 강요하는 억압적 기제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시인으로서의 삶이 허락되지 않았던 세월 동안 억눌러야 했던 자신의 생각을 다시 시를 통해 확인하려는 듯한 穆旦의 1976년 시들은 문학을 회고하는 그 담담한 태도와 자신에 대해 여지를 두지 않는 엄정성으로 인해 오히려 특별한 울림을 갖는다. 그러면서도 晩年の 시들은 솔직하고 소박하며 슬퍼서 청년기 시와 같은刻苦의 흔적을 찾기 힘들며, 어려움을 겪고 난 시인의 인생과 세월, 그리고 운명에 관한 체험을 여실하게 보여준다.¹⁵⁾

무엇보다 穆旦은 스스로 경험한 정치적 곤경과 문학의 부조리를 노골적으로 고발하기보다는 자신 역시 관객이 되어 함께 연출했던 무대 위의 '공연' 같은 한 바탕 허구였다고 털어놓는다.

격앙된 진술, 분노, 찬양, 그리고 웃음은/ 어둠 속 눈동자들이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던 연기/(중략)// 결국 무대 위와 아래는 이 같은 가식에 익숙해져 있으니./ 오히려 친진함과 적나라함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법./ 이렇게 조화롭지 못한 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서 다듬고, 숨기고, 꾸미고, 고쳐.// 특별한 효과를 위해 궁리를 짜내고./ 모든 형식 하나하나가 빛나고 완벽하길 요구하니./ “이것이 바로 삶”¹⁶⁾

문학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격앙과 분노와 찬양을 강요했다. 진심이나 친진함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회, 그것은 오히려 자신과 주변 사람들까지 위협하게 만드는 선부른 순수였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연기'하는 법을 배워야

15) 王家新, <穆旦: 翻譯作爲幸存>, 《江漢大學學報(人文科學版)》(2009年 6期), 11쪽 참조.

16) “慷慨陳詞, 憤怒, 讚美和歡笑/ 是暗處的眼睛早期期待的表演.// (中略)// 終至臺上下已習慣這種偽裝./ 而對天真和赤裸反倒奇怪:/ 怎麼會有了不和諧的音響?/ 快把這削平, 掩飾, 造作, 修改.// 爲反常的效果而費盡心機./ 每一個形式都要求光潔, 完美:/ “這就是生活” <演出> 중에서, 《穆旦詩文集1》, 323쪽.

했다. 자기 사고와 행위,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타인에 대한 신뢰의 여부 등은 반드시 '다듬고, 숨기고, 꾸미고, 고쳐'야만 했고, 모든 것은 '특별'하고 '완벽'하게 고려되어야만 했다. 문혁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으므로.

문혁에 대한 어떤 고발보다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이 같은 사고는, 문혁의 나날 동안 穆旦의 비판적 사고가 결코 정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일 것이다. 그는 특유의 절제되고 주지적인 필치로 문혁의 가식적 본질이 전 사회의 암묵적 동의와 협조에 의해 유지되었음을 상기시키려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보다 궁극적인 힘은 바로 권력이었음을 穆旦은 잘 알고 있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믿음이 극단적으로 실현되었던 문혁의 본질을, '신의 변형'으로서의 '권력'과 '악마' 간 패권 경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신의 변형 神的變形>은 '신'과 '악마'와 '권력'에게 '속고' 조롱당한 '인간'의 각성을 노래한다.

신은 우리에게, 악마를 처부수라 호소하시네./ 악마는 우리에게, 신을 처부수라 호소하시네./ 우리는 신을 혐오하고, 악마를 신임하지도 않네./ 우리는 먼저 무한한 권력을 처부수야 하겠네!/ 우리 머리 위에서 벌어지는 신과 악마의 싸움을./ 우리는 얼마나 오랜 세기 동안 방관해 왔던가!/ 아니 방관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말려들었던가./ 마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열망을 품고서./ 한 바탕 타도하고, 한 바탕 환호하고, 실망은 영원했으니./ 결국 절대 권력이 승리를 얻었네!/ 신과 악마는 세상을 절대적으로 통치하려고./ 스스로를 아름답게 치장할 줄도 알았네./ 마음아, 마음아, 너는 이리도 쉽게 속았으니./ 이제 우리는, 진리를 보았네.(17)

17) “神在發出號召，讓我們擊敗魔，/ 魔發出號召，讓我們擊敗神祇；/ 我們既厭惡了神，也不信任魔，/ 我們該首先擊敗無限的權力！/ 這神魔之爭在我們頭上進行，/ 我們已經傍觀了多少個世紀！/ 不，不是傍觀，而是被迫卷進來，/ 懷着熱望，像爲了自身的利益，/ 打倒一陣，喚呼一陣，失望無窮，/ 總是絕對的權力得到了勝利！/ 神和魔都要絕對地統治世界，/ 而且都會把自己裝扮得美麗，/ 心呵，心呵，你是這樣容易受騙，/ 但現在，我們已看到一個真理。” <神的變形> 중에서, 《穆旦詩文集1》, 361-362쪽.

한 편의 짧은 詩劇 형식을 갖춘 이 작품은 각종 권력 기제의 작동에 내재된 機密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신'과 '악마', '권력', '인간' 간의 극적인 충돌을 통해 인류의 보편적 운명을 고찰함으로써 획득하게 된 시인의 고통스러운 지혜를 穆旦만의 사유와 우울한 결론으로 귀결시킨다.¹⁸⁾ 자신의 이해와는 무관한 '신'과 '악마'의 싸움을 방관하고 또 그 싸움에 휘말리기도 했던 인간이 결국 '절대 권력'의 승리를 도운 것이라는 각성은 유사 이래 인간을 호도했던 모든 권력의 본질에 대한 문제의 제기이자 권력에 의해 유린당한 인간으로서의 심각한 자기반성이기도 하다. '악마'는 결국 '신'의 변형일 뿐이며 절대적 善惡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 그리고 '스스로를 아름답게 치장 할 줄 아는' '신'과 '악마'는 일체 양면적 존재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은 기만당한 인간이 비로소 '신'과 '악마'와 '권력'의 실체에 가 닿을 수 있는 '진리'를 발견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신'의 권위나 '악마'의 악마성보다 무섭고 교활한 것은 바로 '권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인간은 이제 '억압'에 맞서 '반항'¹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권력'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것은 '신'과 '악마'에 필적할만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유령, 그의 뒤에 숨어 있네./ 신이나 악마, 인간이라도 상관없지, 보좌에 올라./ 나는 각종 마술로 그의 맹세를 극복하고/ 나의 腐蝕劑로 모든 구석구석으로 뻗어가리./ 원래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형상이었던 상관없이./ 최후에 인간이 몇 번이나 그 쓰디쓴 과실을 먹었건.²⁰⁾

18) 劉志榮, <生命最後的智慧之歌: 穆旦在一九七六>, 《文學評論》(2004年 第3期), 33쪽과 羅錫文, <關於穆旦後期詩歌創作>, 《中國科學學報》(2006年 6期) 참조.

19) 인간은 "그렇다, 억압이 있는 곳에, 반항이 있는 법/ 신을 전복시키는 자가 곧 천당에 들어가리라 對, 哪裏有壓迫, 哪裏就有反抗;/ 誰推翻了神誰就進入天堂."면서 반항의 의지를 다진다. <神的變形> 중에서, 《穆旦詩文集1》, 362쪽.

20) "而我, 不見的幽靈, 躲在他身後,/ 不管是神, 是魔, 是人, 登上寶座./ 我有種種幻術越過他的誓言./ 以我的腐蝕劑伸入各個角落;/ 不管原來是多麼美麗的形象./ 最後 人已多次體會了那苦果." <神的變形> 중에서, 《穆旦詩文集1》, 362-363쪽.

권력의 가공할 힘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실체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데 있다. 권력은 '신'에게도 '악마'에게도, 그리고 인간에게도 숨어들 수 있고, 모든 것을 원래의 형상으로부터 변형시키고 부식시키는 강력한 '腐蝕劑'로 기능할 수 있다. 더욱이 권력이라는 '腐蝕劑'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쓰디 쓴' 경험을 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상실 했느냐에 관계없이 인간은 다시 그것을 탐하게 된다는 데에 진정한 힘의 원천이 존재한다.

'신'과 '악마', 그리고 '인간'과 '권력'을 小題로 하여 이들이 각각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신의 변형>은 "내 얼마나 많은 승리의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없으나,/ 오늘에 이르러, 나의 체계에 병이 난 것 같아라."고 탄식하는 '신', "나는 병의 원인. 나에 대한 너의 무한한 요구는/ 너의 온몸에 끝없는 녹을 슬게 했으니/ 만족을 모르는 너의 탐욕"이라며 '신'을 조롱하는 '권력', "그것은 나를 원하지, 나는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자라./ 너와의 새로운 대항을 수립했노라"며 권력과의 대립관계를 천명하는 '악마', "그래, 억압이 있는 곳 어디에나 반항이 있는 법./ 신을 전복시키는 자는 곧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비장한 각오를 다짐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한 판 대결이었다.

시대와 개인을 불행하게 만든 근본 원인으로서는 '권력'에 대한 이 같은 고찰은 이제 그 퇴출이 명백해진 구체적 권력에 대한 풍자로 이어진다. 특히 穆旦이 동원하고 있는 '반어적 풍자 反諷'의 언어형식과 정신은 풍자라는 예술 기법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시인의 예민한 감수를 명확히 표현할 뿐 아니라 穆旦 특유의 우울과 비판을 실현하고 있다.

고맙습니다, 모든 치국의 방법들을 '비판'했으니/ 인민의 바람은 당신의 안중에도 없었겠지요./ 열심히 건설하자는 것을, 당신은 '생산력 제일주의'라 했고./ 일한 만큼 보수를 지불하자는 것을 당신은 '물질적 자극'이라고 하면서/ 모든 상벌제도가 통용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중략)/ 호의호식하고 무위도식하면서,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여론을 당신의 수중에서 농단했지요./ 인민이 혐오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환영을 받았으니./ 오직 당신의 음흉한 뒷사람을 떠받들기 위함이었

습니다./ 댔습니다, 이제 음흉한 윗사람이 철저히 망하도록,/ 당신이 공을 세웠으니, 그 공을 잘 기록해 두십시오.²¹⁾

1976년 11월로 추정되는 이 시의 창작 시기²²⁾는 毛澤東의 사망, 四人幫의 몰락과 더불어 거대한 사회 변화가 예견되던 시점으로, 시인은 ‘批林批孔’운동의 전개와 함께 문혁 후기 중국 사회를 휩쓸었던 극좌 경향의 폐해를 풍자 비판하고 있다. ‘大批判組’로 상징되는 문혁의 급진주의는 결국 중국 사회의 이상적 변화와 발전을 가로 막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했음을 간파하고 있는 시인은,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불온한 글쟁이 黑筆杆’로 매도당했던 나약한 지식인을 벗고 문혁과 권력을 향한 마지막 예봉을 포기하지 않았다.

4. 理想, 그리고 ‘나’의 형성과 침몰

1976년은 중국 현대사나 穆旦 개인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절대 권력의 상징에 다름 아니었던 毛澤東의 죽음은 이제 시작될 중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예고였지만, 사회 변화는 이미 훨씬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林彪의 반발과 정치적 도발을 야기했던 중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 林彪의 몰락, 문혁으로 위축된 중국공산당의 권위 재확립, 혁명위원회와 군대의 정치적 역할 축소, 중국의 UN가입과 닉슨 미대통령의 중국 공식 방문 등은 문혁

21) “多謝你, 把一切治國策都批倒./ 人民的願望全不在你的眼中:/ 努力建設, 你叫作‘唯生產力論’, 認真工作, 必是不抓階級鬭爭:/ 你把按勞付酬叫作物質刺激./ 一切獎罰制度都叫它行不通./(中略)/ 吃得腦滿腸肥, 再革別人的命./ 反正輿論都壟斷在你的手中./ 人民厭惡的, 都得到你的歡呼./ 只爲了要使你的黑主子登龍:/ 好啦 如今黑主子已徹底完蛋./ 你做出了貢獻, 確應記你一功.” <黑筆杆頌——贈別‘大批判組’>, 《穆旦詩文集1》, 366-367쪽.

22) 이 시는 穆旦 사후 가족에 의해 제공된 미발표 원고를 근거로 《穆旦詩文集1》에 수록되었는데, <退稿信>과 함께 1976년 11월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穆旦詩文集1》, 366쪽 각주 참조.

이후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변화의 징표들이었다.

물론 현실의 이 같은 변화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穆旦에게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1958년 이후 번역을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던 시 쓰기가 1970년대 초부터 조금씩 재개되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1972년에 穆旦이 동창 楊苾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1971년 옛 친구이자 巴金의 아내였던 陳蘊珍에게 편지를 쓴지 6개월 만에 陳蘊珍이 사망해버려 크게 상심했다고 한다. 평생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할만한 친구는 많지 않은데, 그 중 한 사람의 죽음은 자신을 이해하는 누군가의 죽음이며 그렇게 친구들이 죽어간다면 결국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며 슬퍼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50대 중반에 이른 자신을 돌아보면서 변함없는 내면과 달리 너무 변해버린 외모 때문에 안타까워하기도 한다.²³⁾ 1973년 10월에 쓴 편지에도 몇몇 지인들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 그리고 잇단 지인들의 죽음으로 인한 자기 죽음에의 예감 등이 드러나 있다.²⁴⁾ 간단한 메모 식 일기와 번역 외에는 솔직한 자기 심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穆旦의 심리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들 서신은 의미 있는 자료가 아닐 수 없다.

1975년부터 재개된 穆旦 시 쓰기의 주제는, 앞서 거론한 바의 정치 또는 권력에 대한 사고를 제외하면 상당량이 自我와 理想, 삶의 보편적 의미 등에 관한 사색이라 할 수 있다. 청년 시절 穆旦의 삶과 시는 역사의 질곡 속에 신음하는 중국 현실에 뿌리내린 것이었고, 그는 새로운 중국 건설이라는 理想을 위해 헌신하려 했다. 하지만 穆旦의 理想과 권력이 인민에게 제시하는 理想은 근본적으로 다른 지향을 갖는 것이었다. 20년에 달하는 좌절 이후 穆旦은 理想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다.

파리야, 작디작은 파리야/ 햇볕 아래 날아다니는 네가/ 어떻게 하루 세 끼를 찾

23) 《穆旦詩文集2》, 139-140쪽 참조.

24) 위의 책, 140-142쪽 참조.

아 먹는 지 그 누가 알겠니?/ 내가 지난 밤 어디에서 비바람을 피했는지 그 누가 알겠니?/(중략)/ 여기저기 기웃대며 보고 들으며/ 사람들의 외면도 아랑곳 않네./ 우리가 코를 움켜쥐는 곳도/ 너에겐 벌꿀처럼 향기롭고 달콤해./ 스스로를 평등한 생명이라 자처하며./ 넌 여름을 노래하니./ 너를 이곳으로 불러들여/ 문을 넘고, 창을 기어오르게 하고/ 세계 얻어맞게 만든 것은/ 어떤 幻覺 또는 理想이었네²⁵⁾

‘파리’를 향한 시인의 시선에는 동정보다 환멸에 가까운 정서가 이입되어 있다. 시인은 단순히 보잘 것 없는 ‘파리’의 유별난 부지런함을 풍자하려는 것이 아니라 ‘파리’를 파멸로 몰고 갈 치명적 理想을 경계하려 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파리’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하루 세 끼’나 ‘비바람 피하기’ 같은 衣食의 문제가 아니라 유혹에 대처하는 ‘자의식’의 문제라는 것을 ‘파리’는 알지 못한다. 결코 ‘평등’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평등한 생명’이라 자처하며 자기 존재를 부단히 각인시킬 뿐 아니라 유혹에 이끌려 ‘문을 넘고, 창을 기어오르고 마는 ‘파리’는 ‘幻覺’ 같은 ‘理想’의 희생양에 불과하다. 사실 ‘理想’이란 그것에 미혹되지 않은 자의 관점에서 보면 ‘코를 움켜 쥐’ 수밖에 없는 고약한 그 무엇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벌꿀처럼 향기롭고 달콤해 타인의 ‘외면’도 불사하는 궁극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시인은 ‘幻覺’에 사로잡힌 ‘파리’를 보면서 어쩌면 똑 같은 ‘幻覺’을 ‘理想’이라 신념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으로, 이미 청춘을 소진해버린 시인은 ‘파리’를 유혹했던 ‘理想’의 본질이 ‘幻覺’처럼 실체 없는 것임을 알고 있다. 劉志榮은 ‘파리’의 형상을 통해 유혹과 환멸이라는 시적 주제가 효과적으로 묘사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 그것은 과거 온갖 고초를 당하고도 신시기에 이르러서 오히려 이질적 존재가 되고만 지식인의 형상에 대한 풍자이자 순진했던 시인 자신에 대한 自嘲일 것²⁶⁾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25) “蒼蠅呵，小小的蒼蠅，/ 在陽光下飛來飛去，/ 誰知道一日三餐/ 你是怎樣的尋覓?/ 誰知道你在哪兒/ 躲避昨夜的風雨?/(中略)/ 東聞一聞，西看一看，/ 也不管人們的厭膩，/ 我們掩鼻的地方，/ 對你有香話的蜜，/ 自居爲平等的生命，/ 你也來歌唱夏季，/ 是一種幻覺，理想，/ 把你吸引到這裏，/ 飛進門，又爬進窗，/ 來承受猛烈的拍擊。” <蒼蠅>，《穆旦詩文集1》，316쪽.

理想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主意主義的인 전략에서 시작된 대약진운동이나 문혁의 광기와 무관할 수 없다. 穆旦은 여전히 理想의 필요에 대한 신념을 “理想이 없는 사람은 풀이나 나무 같아서/ 봄이면 피었다가, 가을이면 시들어버리니,/ 삶에 대한 결론을 맺을 수 없고,/ 절망 앞에서는 희망을 얘기할 수 없네.” 라고 하면서도 “理想은 迷宮, 그것의 논리를 따르면/ 너는 아무리 가도 목적지에 이를 수 없지.”²⁷⁾라며 理想의 불가해성에 주목한다. 그는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과 理想 사이의 매울 수 없는 간극, 실현 불가능을 理想으로 포장하는 권력의 의도를 간파했던 것인데, 理想이 배제된 삶이 인간을 공허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헛된 理想을 쫓는 인간의 삶은 ‘迷宮’처럼 모호하고 위험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시인은 스스로 ‘가장 합리적인 생각’, ‘숭고한 길’의 제시자, ‘빛’을 자임하는 理想의 속성을 갈파하면서 理想으로 인해 ‘풍비박산 난’ ‘마음’과 모든 것에 대해 마땅히 품어야 할 ‘의문’을 이야기 한다. ‘의문’은 바로 인간의 ‘지혜’가 시작된 기점이며 ‘의문’ 없이 理想을 따르는 것은 마치 ‘어디로 달려들지 알 수 없는 도깨비불을 쫓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²⁸⁾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숭고’하며 ‘빛’이 될 만한 理想인지를 끊임없이 ‘懷疑’했다면 理想의 추구로 인한 모든 불행을 피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理想을 추구하는 自我의 성격에 관한 문제일 것인데 ‘現代的 自我의 불확실성과 모순된 분열에 대한 통찰’²⁹⁾에도 불구하고 穆旦의 自我는 외부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문혁의 無所不在한 비인

26) 劉志榮, <生命最後的智慧之歌: 穆旦在一九七六>, 《文學評論》(2004年 第3期) 33쪽 참조.

27) “沒有理想的人像是草木,/ 在春天生發, 到秋天枯黃,/ 對於生活它做不出總結,/ 面對絕望它提不出希望.”, “理想是個迷宮, 按照它的邏輯/ 你越走越達不到目的地.” <理想> 중에서, 《穆旦詩文集1》, 327-328쪽.

28) “我是一個最合理的設想,/ 我立足在堅實的土壤上,/ 但現實是一片陰險的流沙,/ 只有泥污的腳才能通過它。// 我給人指出崇高的道路,/ 我的明光能照澈你的迷霧,/ 別管有多少人爲她獻身,/ 我們的智慧終於來自疑問。// 毫無疑問嗎? 那就跟着她走,/ 像追鬼火不知撲到哪一頭。” <理想> 중에서, 《穆旦詩文集1》, 328쪽.

29) 梁秉鈞, <穆旦與現代的‘我’>, 《二十世紀中國文學史論·第二卷》(東方出版中心, 上海, 1997)

간적 힘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懷疑조차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自我의 완전한 소멸에까지 이르지 않는데, 自我와 외부 세계 사이에 형성된 영향과 배척의 張力으로 인해 허위적 주체의 환각이 폭로되면서 주체 생존의 여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³⁰⁾ 결국 穆旦의 후기 작품에서 표현되는 自我는 문턱이라는 황당하고 공포에 가득 찬 배경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시인은 자기 시의 배경을 형성하는 특정한 시대와 사회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1976년 1월, 穆旦이 당한 사고³¹⁾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수반했지만 1년에 달하는 투병의 시간은 지난날을 돌아보며 다시 시를 쓸 수 있게 했다. “최근 약 두 달 동안 정말로 힘들었다네. 하루 온 종일 정신이 혼미하여 누워도 고역이요 앉아도 고역이었다네. 틈을 내어 책을 읽고 옛 시를 읽기도 했지. 陶潛의 人生無常에 대한 탄식들이 좋더군”³²⁾이라는 穆旦의 토로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극한을 오가면서도 知的인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시인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미 환상의 끝에 이르렀다.”로 시작되는 <지혜의 노래 智慧之歌>는 투병의 고통보다 가혹한 자기 성찰의 단말마처럼 느껴진다. “또 어떤 기쁨은 매혹적인 理想/ 그것은 가시밭길도 마다 않고 우리를 걷게 하지./ 理想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네./ 두려운 것은 理想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었으나 “오직 고통만이 남았으니, 그것은 일상의 삶”³³⁾이라며 理想에 이끌린 삶의 현재, 理想과 무관하게 되풀이되는 일상의 고통을 직시한다. 劉志榮은 穆旦의 이 같은 자의식을 ‘시대적

30) 劉志榮, <生命最後的智慧之歌: 穆旦在一九七六>, 《文學評論》(2004年 第3期), 33쪽 참조.

31) 穆旦은 南開大學 구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오른 쪽 대퇴골이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 하지만 가족들의 부담을 염려하여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1년 후 수술을 앞두고 사망한다.

32) 1976년 3월 孫志鳴에게 보낸 편지, 《穆旦詩文集2》, 381쪽.

33) “我已走到了幻想底盡頭,” “另一種歡喜是迷人的理想,/ 它使我在荊棘之途走得够遠,/ 爲理想而痛苦并不可怕,/ 可怕的是看它終於成笑談。// 只有痛苦還在, 它是日常生活” <智慧之歌> 중에서, 《穆旦詩文集1》, 318쪽.

규모로의 자아 확장'이라고 하면서, 자아에 대한拷問이자 현대 사회를 향한拷問이 될 수밖에 없는 穆旦의 회의정신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폭로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³⁴⁾

이제 穆旦은 시인으로서의 자의식과 비판 능력을 신속히 회복하고 시를 포기해야 했던 시간을 반추한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理想'을 '幻覺'과 '환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다른 '나'를 '형성'케 한 현실적 힘에 대해 사고하면서 "신문과 전파가 전달하는 거짓말", "機關에서 機關을 떠도는 공문서"에 의한 자기 왜곡에 주목한다.

신문과 전파가 전달하는 거짓말이/ 승리한 듯 내 머리 속으로 뛰어 들어와./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것들은 위협과 충고를 해낸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손을 흔든다. 그는 지금까지 나를 생각한 적이 없지만/ 내가 큰 길을 걷고 있을 때./ 나를 잡아 삶의 한 귀퉁이에 처 넣어 버렸다.// 機關에서 機關을 떠도는 공문서./ 당신은 그것이 왜 그리 분주히 오가는지 아는가?/ 그로부터 내 생명의 바다가/ 그 印章 밑에서 굳어버리기 때문이다.// 대지 위에는, 진흙이 만들어낸/ 수많은 고층 건물이 수많은 권위로 솟아나/ 진흙은 다시 진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던 나도/ 그때는 이미 그것에 의해 허물어져 버렸다.³⁵⁾

그 시절에는 누구라도 '신문과 전파'를 통해 전달되는 '거짓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민을 '위협'하고 '충고'하는 실제적 권위였다.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받고, 이유도 모르는 채 '삶의 한 귀퉁이'에 처 박히고, 공문서에 찍힌 '印章' 하나가 내 '생명'을 결정해버리는 과정은 무기력한 또 하나의 '나'가 형성되는 과정이었고, 끝내는 '진

34) 劉志榮, <生命最後的智慧之歌: 穆旦在一九七六>, 《文學評論》(2004年 第3期), 34쪽 참조.

35) "報紙和電波傳來的謊言/ 都勝利地沖進我的頭腦./ 等我需要做出決定時./ 它們就發出恫嚇和忠告.// 一個我從不認識的人/ 揮一揮手, 他從未想到我./ 正當我走在大路的時候./ 却把我抓進生活的一格.// 從機關到機關旅行着公文./ 你知道爲什麼它那樣忙碌?/ 只爲了我的生命的海洋/ 從此在它的印章下凝固.// 在大地上, 由泥土塑成的/ 許多高樓矗立着許多權威./ 我知道泥土仍將歸於泥土./ 但那時我已被它摧毀." <"我"的形成>, 《穆旦詩文集1》, 352쪽.

흙처럼 허물어질 '권위'가 오히려 '나'를 압도하고 허물어버리는 시간이었다. 엄혹한 현실이 형성시킨 '나'는 "잘 못 든 길에서 우연히 만난 偶像"에게 "앞드려 절하는 자"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迷茫의 시간을 보낸 뒤에 "그것이 정말 내 자신인지 알 수 없네"³⁶⁾라는 회한까지 없을 수는 없었다. 理想에 미혹되어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자신 때문이었건, 힘을 무기로 헛된 理想을 강요한 권력 때문이었건 自我의 '침몰'은 피할 수 없는 귀결이었고, 시인에게 문학과 권력은 철저히 '침몰'해 가는 自我와의 대면이라는 공포에 다름 아니었다.

몸은 하루하루 물질의 심연으로 떨어진다./ 무엇보다 삶의 유혹과 피의 욕망이/
공허한 청춘에게 오색의 理想을 그려준다.//(중략)//아, 눈코입귀가 모두, 물질 속
에 침몰해버렸으니./ 나는 어떤 소식을 창밖으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떤 하늘이
나의 '현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³⁷⁾

自我의 '침몰'이 이미 끝나버린 과거가 아니라 날마다 다시 시작되는 '현재'의 재연이라는 인식은 정치적 격변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개조'를 강요받았던 시인의 트라우마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그것은 '나'를 형성시킨 '거짓말'의 '위협'과 '충고' 속에서 "번쩍이다 침몰하는 괴상한 꿈"으로 "나를 못 박아"³⁸⁾버리는가 하면, "진실이 충분히 아름답지 않았으므로, 거짓이 황금이 되고", "일상의 삶 속에는 기적이 너무 적어서./ 그것은 평범 속에서 신앙을 만들" 기도 하지만 "그것이 만든 것은 무서운 공허와./ 사방팔방에서 조롱당한 황당함"³⁹⁾이었음을 끊임없이 의식해야 했다. 이처럼 穆旦에게 있어서 문학의 가공

36) "不知是否確是我自己." <自己> 중에서, 《穆旦詩文集1》, 341쪽.

37) "身體一天天墜入物質的深淵./ 首先生活的引誘, 血液的慾望./ 給空洞的青春描繪五色的理想.//(中略)// 呵, 耳目口鼻, 都沈沒在物質中./ 我能投出什麼信息到它窗外?/ 什麼天空能把我拯救出'現在'?" <沈沒> 중에서, 《穆旦詩文集1》, 348쪽.

38) "一個怪夢閃一閃就沈沒", "那荒誕的夢釘住了我." <"我"的形成>, 《穆旦詩文集1》, 353쪽.

39) "因為真實不够好, 謊言變爲真金.", "因為日常的生活太少奇蹟./ 它不得不在平庸之中製造信仰 / 但它造成的不過是可怕的空虛./ 和從四面八方被嘲笑的荒唐:" <好夢>, 《穆旦詩文集1》,

할 위력은 그 외재적 힘 자체로서의 강도보다는 자아의 '침몰'을 초래하는 내재적 변화에 대한 인지때문이었다.

결국 그것이 '환상의 배'에 불과한 것이라 해도 그로부터 내면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었던 시인은 '시'조차 위로가 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 환상의 배를 띄워./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나눠져 다오.// 시, 내가 불평을 말하려 할 때./ 그대는 안 된다는 말로 나를 힘들게 했네.//(중략)// 펄펄 끓는 용암을 상상케 하는 고통은/ 먼지 아래 엎드려 차갑게 더욱 차갑게 변해버렸는데.....
// 찢어진 종이 위에 영원한 삶을 쓸 필요가 있을까./ 침묵은 고통의 가장 드높은 증거인 것을.⁴⁰⁾

'고통'을 쓸 수 없는 시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말 할 수 없다. 시인은 침몰해가는 自我로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내면의 진실과 고통 속에서도 계속될 삶에 대해 모두 '침묵'하는 것으로 한 시대를 견뎠던 셈인데, 인생의 艱難辛苦가 끝나 갈 무렵 穆旦의 삶도 끝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내게 말한다, 당신 늙었네요, 늙었어./ 하지만 그 누구도 발가벗은 나를 본 적이 없다./ 오직 내 깊은 마음의 광야에서/ 진정한 자아의 노래를 목청껏 불렀던.⁴¹⁾

自我의 침몰과 理想 추구의 가시밭길을 차가운 理性으로 노래했던 穆旦은 만년의 전반적인 悲觀 정서에도 불구하고 내면 깊은 데서 자라고 있는 청춘의

350-351쪽.

40) “詩, 請把幻想之舟浮來./ 稍許分擔我心上的重載.// 詩, 我要發出不平的呼聲./ 但你爲難我說: 不成!//(中略)// 設想這火熱的鎔巖的苦痛/ 伏在灰塵下變得冷而又冷.....// 又何必追求破紙上的永生./ 沈默是痛苦的至高的見證.” <詩> 중에서, 《穆旦詩文集1》, 325-326쪽.

41) “人們對我說: 你老了, 你老了./ 但誰也沒有看見赤裸的我./ 只有在我深心的曠野中/ 才高唱出真正的自我之歌.” <聽說我老了> 중에서, 《穆旦詩文集1》, 329쪽.

反抗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시인은 이미 많은 것을 상실 했지만 '내 깊은 마음의 광야'에서 '자아의 노래'를 부르는 '나'를 굳건히 지킴으로써 언제라도 새롭게 삶을 노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穆旦의 후기 시는 1958년 이후 일방적 순종과 수용이라는 억압적 기제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詩的 表출이었다. 무엇보다 穆旦의 1976년 시들은 문학을 회고하는 담담한 태도와 자신에 대해 여지를 두지 않는 엄정성으로 인해 오히려 특별한 울림을 갖는다. 穆旦은 1960, 70년대 중국 사회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삶의 순간들을 내면화하고, 비판과 성찰이라는 문학적 임무를 실천했다. 穆旦의 知己였던 劉兆吉은 그의 성품이 마치 '보온병 暖水瓶' 안에 든 뜨거운 물과 같아서, 표면은 차갑지만 그 내면은 불꽃처럼 뜨겁다⁴²⁾고 정의한 바 있다. 실제로 穆旦의 후기 시들은 차가움과 따스함, 청춘과 노년, 감성과 이성, 이상과 현실, 표현과 침묵 등과 같은 두 가지 상반된 내면 상태의 격렬한 搏鬪를 객관화된 두 가지 人性的 요소나 상이한 삶의 상황으로 객관화시킴으로써 인생의 보편적인 모순을 표현하고 있다.⁴³⁾ 이로써 穆旦이 경험한 모든 삶의 순간들은 개인적 체험을 넘어서는 인생의 보편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데, 특히 사랑과 우정, 理想 같은 가치를 믿으며 살았던 지난날이 결국은 허무하고 덧없는 시간의 집적이었을 뿐이라는 자각은 평생을 그 같은 가치를 위해 치열하게 산 자만이

42) 劉兆吉, <穆旦其人其詩>, 《豐富和豐富的痛苦》(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7), 190쪽 참조.

43) 劉志榮, <生命最後的智慧之歌: 穆旦在一九七六>, 《文學評論》(2004年 第3期), 35쪽 참조.

말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지혜다. 하지만 穆旦의 모든 경험과 자각이 단순한 회한이나 허무주의로 귀결되지 않고 인생의 보편적 의미에 대한 고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바로 그 같은 지혜의 추구 때문이었다.

< 參考文獻 >

李方 編選(2006), 《穆旦詩文集1》,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李方 編選(2006), 《穆旦詩文集2》,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李方 編(1996), 《穆旦詩全集》, 北京: 中國文學出版社.

杜運燮、袁可嘉、周與良、編(1987), 《一個民族已經起來》, 江蘇: 江蘇人民出版社.

杜運燮、周與良、李方、張同道、余世存 編(1997), 《豐富和豐富的痛苦》,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永明, 瑗平(1987), <憶父親>, 杜運燮、袁可嘉、周與良 編, 《一個民族已經起來》, 江蘇: 江蘇人民出版社.

劉志榮(2007), 《潛在寫作 1949-1970》,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郭保衛(1987), <書信今猶在, 詩人何處尋>, 《一個民族已經起來》 江蘇: 江蘇人民出版社.

王家新(2009), <穆旦: 翻譯作爲幸存>, 《江漢大學學報(人文科學版)》 6期.

羅錫文(2006), <關於穆旦後期詩歌創作>, 《中國科學學報》 6期.

梁秉鈞(1997), <穆旦與現代的“我”>, 《二十世紀中國文學史論·第二卷》, 上海: 東方出版社.

첸리첸 지음/ 길정행 · 신동순 · 안영은 옮김(2012), 《망각을 거부하라》, 서울: 그린비.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2004),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서울: 이산.

< ABSTRACT >

Mu Dan's later works were tears and groans of his life. His painful life was caused a Chinese political movement from end of 1950s to The Cultural Revolution.

Since 1957, he had stopped writing poetry, Mu Dan resumed the work in 1976, just a year before he passed away. However that was not just to accuse The Cultural Revolution but the necessity of self-examination and self-awareness of life that had to be abandoned as a poet. The one-sided victim of The Cultural Revolution, the intellectual had no other option but survived by constant self-denial. The mixed self-denial of forcibleness and self-motivation was a sort of submission. Finally it was the self-bridle that had to be denied once more. The process of self-reformation through endless political whirlpool and criticism to poetry and thought was a painful self-denial progression. MuDan could not write poetry almost 20 years. His poetry was written in 1976 became his Posthumous Work as he passed away next work. The work is a sight of history and reality, also an self-examination of a poet who is going to his latter year.

The investigation would be a report about poet who could not write poetry and the intellectual who could not think, those who lived in the age of Mu dan and the destiny of Chinese intellect.

Key Words: Mu dan, The Cultural Revolution, self-examination, self-awareness, victim, self-denial, political whirlpool, insight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9. 27.	2012. 11. 5.	2012. 11. 15.	2012. 11. 21.	2012. 11. 30.